

시끌벅적 e-스타



박용수의 팝스 칼럼



'이런 남자 정말 싫다~' 클릭 해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 많다고 싫어 할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하면 인기 있을 수 있을까 골몰하는 이들, 특히 '인기남(男)'이 되고 싶은 이들의 눈길을 확 끄는 동영상인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등장했다. '이런 남자 정말 싫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1만2천 네티즌의 공감을 얻으며 클릭 세례를 받았다. 동영상에는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여자들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을 모아놓았다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인기남'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6가지. 몸에서 냄새 나는 남자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청결은 필수다. 후각만 중요한 건 아니다. 시각적인 면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누리누리한 와이셔츠 환상을 깨는 지름길이다. 콧바람에 나무개는 코털은 '오 마이 갓!'을 부른다. 제자리를 이탈한 코털은 여자

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존재다. 물수건을 보면 몸을 닦고 싶어지는 갈끔(?) 남자를 역시 피짜다. 깨끗하게 식사 자리에서 밥알 세고 있는 남자도 속 터진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우적우적 먹어서도 안 된다. '짹짹' 소리를 내며 입 안에 있는 음식물 다 드러내는 남자들도 속 터지긴 마찬가지다. 위에 5가지 것들 모두 피한, 깔끔함과 복스럽게 음식 먹는 능력을 갖춘 남자라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모국어' 실력. 철자법 틀린 문자는 아예 보내지 않는 게 이미지 관리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인기남이 되기 위해선 국어 공부 먼저 열심히 하자. 네티즌은 "모국어 못쓰는 남자 쿨", "코털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싫어?"라며 동영상에 관심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음악을 듣다보면 가끔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 볼 때가 있다. 문득문득 정지하는 화면 속에 소중한 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안에 함께했던 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워지게 마련이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를 매년 옮겨다녔기에 내겐 초등학교 친구가 없다. 때문에 가끔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쓸쓸해지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내게도 소중한 사람 지니고 있는 몇몇의 친구가 있다. 전화 하면서 헤어진 어린 시절 단 하나의 초등학교 친구, 내가 보낸 13장의 편지를 제대할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잤다는 친구.. 지난 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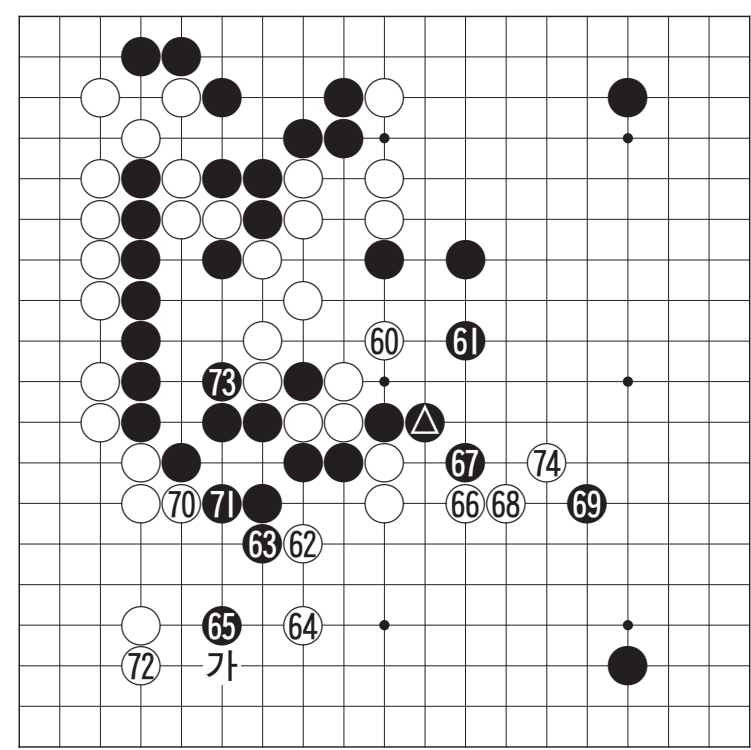


와 멜로디를 뒤로 한 채 Marmalade는 우리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 가는 그룹이 되었다. 비틀즈와 비지스와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그들의 음악성을 추종했던 Marmalade. 비록 그들은 해산이 되었지만 Reflections Of My Life는 세월이 지나도 늘 다른 모습으로 듣는 이들에게 삶의 잔상을

힘들때 추억의 팝으로 여유를

에 대한 그리움이 갈증으로 다가올 때, 나를 위로 해 주는 추억의 팝 음악을 소개한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5인조 그룹 Marmalade의 최대 히트곡이자 팝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명곡인 'Reflections Of My Life'란 곡이다. 그룹 멤버들도 이 곡을 녹음할 당시인 1969년에 그들을 대표해주는 특별한 곡이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온 마음으로 노래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 노래는 예상대로 큰 성공을 거두며 200만 장 이상이 팔렸고 방송도 100만 번 이상 탄 음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곡은 그룹의 싱어 송 라이터이며 리더 기타를 맡고 있는 Junior Campbell이 런던에 있는 집에서 쓰고 있을 때, 그때까지 자기 그룹을 대표할 만한 곡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코스틱 기타를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나중에 보컬을 맡고 있던 Dean Ford가 멋진 곡명과 가사를 완성시켜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노래가 탄생했다. Marmalade는 그들의 매니저가 지어준 이름으로 오랜지를 으깨어 찹쌀떡 만든 것으로, 아마도

다시 그려주는 노래로 남아 있다. 이 곡은 힘든 인생의 고비를 조금씩 넘기고 난 후에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결코 평탄치 않은 인생길이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용기와 각오로 세상을 살아 가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음악이다. 세상은 내게 힘겨운 곳이며 때로는 살아가기에 숨이 가쁠 정도로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나는 살고 싶다는 가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누구나 역경에 부딪혀 좌절을 경험할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혼자만 있다는 서글픔에 크건 작건 혼자 울부짖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신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과 고통을 준다는 말에 공감한다. 살맛나는 세상이라는 말을 듣기가 어려운 요즘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이겨낸 자신의 모습을 다시 투영해 볼 수 있다면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팝컬럼니스트·광주교통방송 '남민이 있는 곳에 진행'>



세번째 모자 씌움 5보(60~74)
기우희 대항진
白 기우성 5단 (오로회)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현재까지는 기우성 5단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김희관 흑 69가 세번째로 터진 모자씌움이다. 이제까지 두번의 모자씌움은 기우성 5단 선방에 막혀 나쁜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과연 이번의 모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2008한국바둑리그 오늘 개막
'KB국민은행 2008 한국바둑리그'가 10일 개막, 연말까지 약 9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5판 다승제를 도입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팀 순위는 승률, 개인승수, 승자승의 순서로 따진다. 또 제한시간이 긴 대국과 짧은 대국이 함께 진행된다는 것도 큰 변화다. 5판 가운데 한 판은 제한시간 1시간 30분 30초 초읽기 5회로 처리되며, 나머지 4판은 제한시간 없이 30초 초읽기 10회의 초속기 대국으로 펼쳐진다. 광주 연구팀인 '광주 Kixx'은 10일 '울산 디아제'와 첫 경기를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빙 센스
빵 맛있게 먹기
▲카스텔라에는 설탕물과 위스키
카스텔라를 다 먹지 못해서 냉장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그냥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설탕을 탄 다음 위스키를 한두 스푼 정도 넣어 카스텔라에 뿌려주면 좋습니다. 굳어졌던 카스텔라가 부드러워지고 위스키의 향까지 더해져 맛이 더욱 좋습니다.
▲샌드위치와 버터
샌드위치를 만들어 두면 시간이 지나서 물기 때문에 흐물흐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식빵 안쪽에 버터를 미리 발라주면 좋습니다. 버터를 촘촘하게 넓게 펴발라주면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아서 샌드위치가 질퍽하게 물러지지 않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4월 10일(음 3월 5일 庚辰)
36년생 仲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48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라. 60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 72년생 사기꾼이 달려드니 주변을 정리. 84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하니 차라리 자선을 베풀라. 행운의 숫자: 18, 43
37년생 여유로운 하루로니 걱정 말고 지내라. 49년생 가내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61년생 전화위복이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73년생 애인과 이성교제가 있을 수도 있다. 85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0, 32
38년생 부부사이에서 새로운 사람이 신생한다. 50년생 신념을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62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4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하다. 행운의 숫자: 06, 42
39년생 큰 덕은 자선에 있다. 51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63년생 물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75년생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보고 연금이나 특권을 버려라. 행운의 숫자: 13, 28
40년생 융화상박이니 결과는 반반이다. 52년생 사방이 소란하니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64년생 시비 승사 구별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76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니 베풀면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24, 41
41년생 시비가 생겼도 자신에게 기운다. 53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라. 65년생 기회가 엿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숙고하라. 77년생 매사에 최선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0, 27
42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54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66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러리니 가려서 들어라. 78년생 재사가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22, 39
43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중해는 안정하게 자리한다. 55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라 발전이 있으리라. 67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생하나 돌변을 조심하라. 79년생 짐작하게 서생하면 오히려 빠르리라. 행운의 숫자: 15, 16
44년생 새 문서가 눈물 본다. 56년생 교육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8년생 재사가 순조롭게 신생되며 자유롭게 진행된다. 80년생 예까지 못한 억울하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21, 25
45년생 輸輸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갈 쪼여서도 어수선하다. 57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69년생 결과가 의외처럼 좋은 하루다. 81년생 조용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05, 37
46년생 총의 불연사가 발생한다. 58년생 가정과 靑人의 불연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70년생 부부사이에서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82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08, 34
47년생 비정한 고충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59년생 부부사이를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71년생 이해없는 선감에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83년생 짐재 속에 살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17, 4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ections.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and its answer in the respective language.
Column 1: What did you take last semester?
Column 2: どこで申(もう)しこめばいいんですか.
Column 3: 去商场买什么?
Column 4: 靑雲之志(靑雲志)